

새터민 초등학생의 한국사 인물 인식 실태와 특성 이해

이 석 재
안성 원곡초

I. 서 론

최근 북한은 지속되는 식량난과 경제적 위기, 김일성 가계의 3대 권력 세습과 같은 체제의 불안정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남한으로 입국하는 새터민¹⁾(북한이탈주민²⁾)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과 동반 입국하는 새터민 자녀들의 수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새터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정부는 사회적응 및 일반학교 편입 지원을 위한 새터민 청소년 특성화학교를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새터민 청소년 보호시설 및 대안 학교도 다수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정착 지원 학교 현장의 새터민 자녀들은 짧은 기간의 적응교육만으로 남한 생활에 쉽게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새터민 자녀들에게 체제가 다른 남한과 북한은 인종적·언어적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이상의 분단으로 인하여 같은 사회·문화에서 생활에 온 다른 민족보다 더 큰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새터민 자녀들의 부적응 요인도 이에 기인할 수 있으며(김영하, 2010: 228), 이는 새터민 자녀들이 남한과 북한의 각각의 체제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화되었기 때문이다(정병호, 2007: 23). 그리고 새터민 부적응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원인 중의 하나는 남북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정체성 문제와 그로 인한 소속감(공동체 의식) 부재로 인한 ‘소외 의식’이다(조정아 외, 2006: 201-212).

이러한 새터민 자녀들에게 자아 정체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남한의 사상과 문화,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분단 이전의 한민족의 역사를 공유하는 것이다. 역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적 뿌리와 공동 유산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적 정체성과 자부심, 애국심을 갖도록 한다(강선주 외, 2007: 18). 즉, 분단 이전의 역사를 공유하면서 남한의 역사가 북한의 역사와 다르지 않은 동일한 역사를 지닌 우리 한민족의 삶의 유산이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민족의 동질성이란 단순히 같은 핏줄을 가진 인종학적 동질성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오면서 우리 민족이

1) ‘새터민’은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귀순동포’, ‘자유북한인’ 등의 호칭이 일반적으로 주는 거부감을 없애고자 통일부에서 2005년 1월 북한이탈주민, 언론기자단, 일반 국민의 수렴과정을 거쳐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사는 사람’의 의미를 가진 ‘새터민’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 대신 통일부 권장호칭인 ‘새터민’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구어 낸 문화의 동일성과 이것이 가능했던 문화의 기본적 바탕,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화를 동일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정체감을 의미한다(김한중, 2006: 676).

역사교육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암기하고 획득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본 사실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 자체를 이해하고 역사를 탐구하는 능력을 획득하여 학생들이 특정 역사 담론을 비판하고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송상현, 2005: 101-10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사교육은 여러 가지 내용과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역사의 주체인 인간을 통한 역사교육은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이러한 역사의 주체인 인간 즉,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을 인물학습이라고 한다. 역사인식 발달 단계를 보면, 초등학생은 인물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왕성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효과적으로 인물 지도를 한다면, 역사교육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김홍수, 1996: 126). 따라서 남한 사회의 부적응과 심리적 혼란 상태에 빠진 새터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은 역사 변천과정 상의 역사 인물에 관한 학습과정을 통해 서로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민족의 동질성을 찾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즉, 새터민 초등학생에게 분단 이전 하나의 역사 아래 공유할 수 있는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남한 생활의 적응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남한사회의 부적응 요인에 대해 성인 새터민이나 새터민 청소년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남한 사회의 적응의 매개로써 초등 사회과의 새터민 초등학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착지원 위탁 교육기관의 새터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사 역사 인물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인식 실태를 알아보고 그 의미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탈북 이후 남한 생활의 과도기적 시기에 있는 국내 입국 새터민 초등학생을 위한 초등 사회과 역사영역의 내용 선정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연구를 시도하였다.

II. 새터민 초등학생의 역사교육 현황

1. 새터민 초등학생의 역사교육 현황

새터민과 그 자녀들은 이주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원에서 남한사회 적응훈련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는데, 2001년부터 하나원 내 체계적인 청소년 특별프로그램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남한사회학교 적응 예비 학교 형태의 '하나돌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초등반은 인근의 삼죽초등학교에 위탁하여 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반은 하나돌학교 내에서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삼죽초등학교는 새터민들이 하나원에서 적응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들이 위탁으로 학교교육을 받는 정규 초등학교이며, 여기서 새터민 학생들은 최초 학적을 취득한다. 삼죽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6세부터 11세까지이지만, 북한에서 소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12세 이상 15세의 학생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오전에는 '원적학급'에서 남한 학생들과 함께 통합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특별학급'에서 별도의 수업을 받는다. 이러한 위탁교육을 받는 새터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삼죽초등학교에서는 새터민 초등학생을 위한 '우리는 하나'라는 교과 목표 아래 하나원 입소 기간 중의 3개월 동안 남한사회 적응 능력에 필요한 요소인 학교생활의 이해, 예절 생활의 이해, 민속놀이의 이해, 남북한 언어 및 문화의 이해, 취미생활, 현장체험학습, 기초학습기능 등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위탁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교육 실태는 현행 2007 개정교육과정의 사회과 역사영역 수업을 받고 있는 5학년과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인해 역사학습이 결손 되어 우리나라 역사보충교재로 수업을 받는 6학년과 동일선상에 있는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새터민 초등학생용 교재인 '우리는 하나' 교과 내용 체계표를 통해 새터민 초등학생의 역사교육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새터민 초등학생용 교재는 3개월 과정으로 총 12단원이며 매 단원은 4주제 8차시분과 체험학습 6차시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터민 초등학생으로만 반이 구성된 특별학급에서 석 달간의 수업시간 240시간 중 새터민 초등학생용 교과서를 활용하여 168시간 수업이 이루어지며, 72시간은 남한 초등학생과의 통합수업을 받는 원격학급에서 학년 교과의 교과 학습을 돕거나, 특별학급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 새터민용 교재 속 역사교육과 관련된 주제의 인물 수업은 5학년의 경우에는 6주제 12차시, 6학년은 7주제 14차시로 교육내용이 편성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역사인물을 선정하기보다는 외침을 격퇴하여 나라와 민족을 구한 인물, 일제하의 독립운동가 등의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 위주로 내용이 조직되어 있었다. 위탁교육 기관인 삼죽초등학교에서의 역사교육 시간은 새터민 초등학생의 새로운 남한사회와 학교환경의 적응을 우선시 하는 교과 내용구성으로 인해 그 비중이 매우 적다. 그리고 위탁교육이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관련 내용도 주제별로 텍스트 중심의 짧은 이야기 소개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편지쓰기나 소감문 작성 활동 등으로 이루어지는 2차시분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 역사영역 내용의 연대기적 서술 방식과 달리 주제 중심의 단편적인 인물 소개와 서술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2. 북한 역사교과서의 서술방식과 역사인물 유형의 특징

북한의 역사교과서인 <조선력사>는 북한 학제상 고등중학교 1-6학년 시기에 배우며, 총 6권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조선력사> 역사교과서의 내용체계와 서술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력사> 1,2권의 가장 두드러지는 내용체계의 특징은 단원 구분 없이 주제적 접근 방식으로 인물이나 사건 위주의 이야기 서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조선력사> 1권은 남한의 시대구분으로 살펴보면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남북국 시대 중 발해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조선력사> 2권은 고려시대부터 일제시대까지의 시대를 다루고 있다. 연대기적인 시대순으로 주제를 단순 나열 방법으로 주제를 배열한 것이 아니라 주제적 접근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역사 내용 중에서 선별하여 이야기체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인물이나 사건 중심의 주제 이외에 민족의 유적이나 유물, 발명에 관한 내용으로 천문대, 금속활자, 측우기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3·4·5·6학년은 통사체인 <조선력사>를 연대기적 방법으로 3학년은 원시부터 발해와 후기신라까지(고대사), 4학년은 고려시대(중세사), 5학년은 조선시대(근세사), 6학년은 일제침략기 1920년대 초기공산주의운동(근대사)까지를 다루고 있다. 이 시기의 통사체 교과서는 이야기체 교과서와는 달리 단원(장)·주제(절) 및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구성체론에 입각한 시대 구분과 왕조명에 기초하여 단원의 제목이 정해져 있어, 공산주의 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의 사회 발전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이찬희, 2004: 204). 즉, 북한의 1,2학년의 <조선력사> 교과서의 내용은 주제 중심적 접근으로 인물과 사건 위주의 서술 방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비해서 중학교 3-6학년의 <조선력사> 교과서의 내용은 통사체인 연대기적 방법으로 학년별 시대사 중심의 체제의 서술

방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조선력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역사인물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각 시대에 있어 폭동과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시대적 배경과 원인의 당위성을 입증할 만한 인물들을 등장시킨다(김미영, 2004: 31).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지배 계급의 인민들이 어떻게 혁명 의지를 내세워 반봉건, 반외세 투쟁을 전개하였는가를 밝힌 다음, 혁명 투쟁 주체의 후손으로서의 민족적 자긍심을 내세우고 주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조직의 원리에 입각하여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조직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조선력사>는 역사의 주체를 철저히 지배계층(봉건통치배)이 아닌 피지배계층(인민)에 두고 있는 것이다(이찬희, 2004: 218). 봉건적 지배에 대한 저항하는 농민과 천민군 지도자를 등장시켜 이들의 저항을 크게 부각시키며, 외세의 침략의 경우에도 그 중심이 지배계층이 아닌 피지배계층인 인민들을 역사적 인물로 설명하고 등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조선력사」에만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체로 남한에서는 생소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반봉건·반외세적인 활동을 하거나 피지배층의 입장을 옹호하는 인물들을 비중 있게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북한의 「조선력사」에는 그들의 체제와 이념을 반영하여 등장인물의 선정에서 계급주의적 관점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김선규, 2001: 206).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역사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한 역사교육은 개인의 자아발달 보다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구성원의 양성을 위해 학생들을 ‘혁명화, 노동 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사회주의 혁명 건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 등 지도층에 복종하는 충직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195).

Ⅲ. 새터민 초등학생의 한국사 인물 인식 실태 및 특성 이해

1. 한국사 인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내부적 요인

가. 반봉건·반외세의 투쟁과 저항으로 인식되는 역사인물

새터민 초등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역사인물 유형 중에서 정치사상교육의 일환으로 교육하는 김일성 가계에 대한 인물들을 제외하면, 동명성왕(고주몽), 광개토대왕, 왕건 등의 왕과 이순신, 을지문덕, 설죽화, 강감찬 등과 같은 장군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한 새터민 초등학생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유○○ : 살수대첩, 을지문덕, 수나라 300만 군대가 쳐들어 왔을 때, 청야 수성 전투에서 유인전술을 펼쳐 살수강에서 모조리 소탕했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백제의 계백 장군도 배웠어요.

이○○ : 조선력사 배울 때, 이순신 장군 배웠고, 고구려를 쳐들어 올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어가지고 싸워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다고 배웠어요.

주○○ : 고조 배운 건 책으로 나온 설죽화 기억나요. 조선력사 책에 동명왕에 대해서도 나오고, 설죽화는 영화로도 나와요. 싸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섬나라와 관련된 내용인데,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아요. 나라를 세운 왕건, 동명왕이 기억나네요.

박○○ : 광개토 대왕은 어린 왕자로 태어나서 장군이 되어 나라를 세웠다는 내용을 책에서 봤어요.

조○○ : 이순신 장군이 기억나요. 이순신 장군은 인민들을 위해하는 왜놈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거북선을 만들어서

놈들을 바닷물에 빠뜨려서 몇 번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한 장군이라고 배웠어요.

새터민 초등학생을 통해 본 한국사 인물에 대한 인식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워 물리친 이순신, 을지문덕, 광개토 대왕, 설죽화, 계백 등의 인물에 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명성왕인 고주몽, 왕건, 이성계와 같은 나라를 건국한 시조인 역사인물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특히, 새터민 학생들이 언급한 설죽화는 남한의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은 생소한 인물인데, 고려시대 거란의 제3차 침입이 일어나자 강감찬 장군 밑에 들어가 소년군의 선봉자로 활약한 설화 속의 인물이다. 또한, 대부분의 새터민 초등학생들은 위에서 언급한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역사인물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으며, 인물들의 평가도 상당히 긍정적이며 나라를 구한 인물들로 자랑스럽게 여겼다.

즉,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탈북하기 전 새터민 초등학생들이 배운 북한의 「조선력사」 1,2권의 역사 교과서에는 그들의 체제와 이념을 반영하여 등장하는 인물들을 선별하여 교과서에 수록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쳤으며, 내용 선정 및 기술 방식이 반봉건적이고 반외세적인 활동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나. 인물과 사건의 단편적인 사실 위주로 인식되는 역사인물

새터민 초등학생을 통해 바라 본 한국사 인물 인식의 두드러진 또 하나의 특징은 인물과 사건의 단편적인 사실 위주로 역사인물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새터민 학생들에게서는 시대의 흐름이나 순서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거의 없었고 인물 위주의 단편적인 사건 중심의 이야기만을 단순 기억하고 있었다.

유○○ : 조선력사의 처음 부분에서 단군을 먼저 배웠구요, 강감찬이 고려시대인가? 그냥 인물별로 배웠던 기억만 나요.

이○○ : 시대 그런거 잘 몰라요.

주○○ : 북한에서는 시대 얘기 안 해요. 고려시대나 고구려는 같은 건 나오는데, 다른건 잘 몰라요.

정○○ : 백제 있는 건 아는데 신라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주로 장군이나 왕, 유명한 거북선 배워요.

기존의 선행 연구 중 새터민 청소년의 역사교육 실태와 한국사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도 위와 같이 시대 흐름에 대한 인식보다는 인물 중심의 단편적인 사건만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새터민 초등학생들도 이와 같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삼국시대 중 고구려와 백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신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 초등학교의 5,6학년은 북한 학제로 중학교 1,2학년에 해당되는데, 북한의 중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교과서인 「조선력사」 1,2학년의 역사내용 서술 방식이 1학년은 선사시대부터 삼국까지, 2학년은 고려시대부터 6·10만세 운동까지의 연대기적인 방법으로 1,2학년 역사교과서가 통사체로 내용이 서술된 것이 아니라, 시대별 주제 중심의 인물과 사건 위주의 서술방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새터민 학생들이 시대 흐름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 교과서·그림책·구전(口傳)의 제한적 경로를 통한 역사인물 인식

대부분의 새터민 초등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사 인물들은 북한에서 학교의 역사 수업시간이나 교과서를 통해 알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역사적 인물에 대해 접근하는 경로는 책방 내에 있는 서적이거나 그림책, 부모님이나 친척들의 구전의 경로를 통해 한국사의 역사 인물들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다.

주○○ : 집에서 엄마, 아빠나 할머니가 인물들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TV나 드라마 못 보게 했어요. 주로 책방이나 교과서에서 봤어요.

박○○ : 그림책으로 많이 봤어요. 그림책에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것하고, 이순신 장군이 총알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림책인데,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와 있어요. 광개토 대왕은 어린 왕자로 태어나서 장군이 되어 나라를 세웠다는 내용을 봤어요.

조○○ : 다른 영웅이야기는 부모님이나 고모들의 이야기와 교과서 혁명역사 시간에 들어서 알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안전원이라 우리나라 영웅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수복, 조근실, 조영애, 길영조, 강반석, 김형직도 알려 주었어요.

정○○ : 아는 형들의 이야기나 친척집 가서 영웅들에 관련된 책을 많이 봤어요.

부모님이나 친척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대부분의 역사인물은 남한에서 생소한 북한 내부의 공화국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았으며, 이러한 인물들로는 이수복, 조근실, 조영애, 길영조 등이 자주 언급되었다. 또한, 수 십 년간 북한의 사상교육으로 인해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 아버지인 김형직에 대한 영웅담 이야기가 부모님이나 친척들을 통하여 자식들에게 많이 이야기 된다고 하였다. 즉, 북한의 정규 교육기관에서도 우상화를 위한 정치사상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우상화가 자연스럽게 부모나 친척들을 통해 자식에게 내려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한정된 경로를 통한 역사인물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인물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판단과 능동적 태도보다는 수동적인 인식의 태도를 보여준다.

2. 탈북으로 인한 한국사 인물 인식 양상 변화의 외부적 요인

가. 역사교육의 비연속성으로 인한 역사인물의 오개념 형성

새터민 초등학생의 일부는 한국사에 등장하는 역사인물에 대한 오개념을 갖고 있다. 다음은 역사인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인식하고 있는 학생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 : 조선력사 배울 때, 이순신 장군 배웠고, 왜놈들이 고구려를 쳐들어 올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어가지고 싸워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다고 배웠어요.

조○○ : 고주몽은 고조선을 위해서 왜놈들하고 싸우다가 쳐부수고 나서 몇 번 인민들, 못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세운 주인공이라고 알고 있어요. 고주몽이 고조선을 세웠어요.

두 학생 모두 인물중심의 사건을 이야기로 서술하고 있는데, 위의 답변에서 인물과 시대의 연결을 혼동하거나 국가를 세운 시조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역사인물에 대한 오개념의 형성을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 볼 수 있는데, 새터민 초등학생들이 탈북해서 남한으로의 입국까지 그 기간 동안 학

교에서 역사 수업이나 북한의 일부 지역의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으로 역사 교육의 단절로 인한 오개념 형성과 북한의 1,2학년 역사교과서의 내용 진술이 인물 및 사건 중심의 역사 내용 서술로 인한 시대 흐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 박○○ : 탈북하는 동안 한국소식이나 역사 인물들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앞서 건너갔고, 중국에서 3년 정도 지내고 사람을 보내서 할아버지, 할머니 데려오고, 저를 데려오고, 정신이 없었어요.
- 조○○ : 중학교에서 조선력사 배웠어요. 소학교 기본 다닌 건 4학년까지 하고, 올라가서 중학교 1,2학년 다녔어요. 그런데 여기 올 때 2학년이었는데 생활이 바빠서 다니다 말다 했어요. 조선력사 책 한 권당 1년씩 배워요. 그리고 1,2학년 교과서가 다르구요.
- 정○○ : 한 학년 묵혔습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니다. 살기 어려워 어머니가 묵혔습니다. 한 반에 있는 친구들이 11살부터 13살까지 있었구요, 소학교는 4학년 공통이에요.
- 이○○ : 학교 때 아파서 많이 못 갔어요. 절반이상 못 갔거든요. 학교를 다니더라도 학교 끝나는 시간이 매일 달라요. 작업 나가는 날도 많고, 풀 뽑기, 자갈 줍기, 나가서 어디 학교, 농장, 강냉이, 농장원도 도와주기도 하고 학교에서 말아서 하는 농장 밭 일도 하고, 교직원들에게 분배하기도 해요.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하는데, 조선력사 수업 못할 때 도 많아요. 수업 시간표를 교무지도원이 하거든요. 매일 시간표가 달라요. 매일 저녁에 짜고 아침에 나와요.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새터민 초등학생이 남한에 입국해 위탁교육기관에서 초기적응교육을 받고 있지만, 남한의 정규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는 초등학생들이 흔히 범하는 시대와 역사인물의 혼동 양상의 원인과는 달리 새터민 초등학생들의 사회과 역사수업 중 한국사의 역사 인물에 대한 오개념은 장기간의 탈북 기간으로 인한 역사수업의 단절로 생긴 인물과 시대의 혼동, 그리고 북한 역사교과서의 역사 내용에 대한 주제 중심의 인물과 사건 이야기 서술로 인해서 생긴 시대의 흐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이러한 북한 역사교과서의 체제 및 역사교육의 비연속성으로 인해 역사 인물들의 오개념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외부세계 접촉으로 인한 북한 이상화 인물의 인식 양상 변화

북한에서의 역사교과는 하나의 교과로써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사상교육의 일환으로 역사교육을 사상혁명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간주하여 중요하게 여기며, 역사교육과 정치가 결합된 이상화 교육을 위한 하나의 도구적 교과 측면이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 입국 후, 새터민 초등학생의 일부는 북한의 정치 사상교육을 통한 이상화 교육의 주요 인물인 김일성 가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조○○ : 탈북 후 중국에서 사람들한테 전해 듣고 느끼고 남한에 와서 또 느끼는 건데 김정일, 김일성 나쁘게 생각돼요. 내 생각하기에 김정일이 비싼 음식이랑 먹는다는데, 우리 백성들하고 우리 집은 인민 배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금 조금, 강냉이 두 킬로 정도, 그리고서리 북한에서는 꽃제비도 많은데, 정가장에 쪽 찢어진 것 입고 돌아다니고 도둑도 많고 부모 있어도 조금 주고 그래요.
- 유○○ : 여기와서리 대조영이나 왕건과 같은 TV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북한에서는 이런거 별로 없고 김일성,

김정일 이야기 같은 드라마만 했던거 같아요.

주○○ : 북한에 있을 때, 남한의 대통령을 돈 밖에 모르고 악착하고 승냥이는 양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북한 탈북 후 중국에 있을 때나 남한에 와서 텔레비전에서 김정일의 기쁨조의 소리를 들었는데, 북한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몰랐었고, 그래서 북한의 김정일에 대해 배웠던 생각이 싹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탈북한 우리 인민들의 가족과 상봉했으면 좋고 우리의 아버지와 동생을 하루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 사상교육은 개인의 자아 발달 보다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구성원의 양성을 위해 학생들이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김일성과 김정일 등 지도층에 복종하는 충직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세뇌교육을 받은 새터민 초등학생은 탈북기간 동안 중국의 조선족이나 먼저 탈북한 탈북자나 자신의 부모님들을 통해 접하게 되는 북한의 실상을 통해 북한 역사나 정치 사상교육시간에 배웠던 김일성과 김정일 가계에 대한 허상을 먼저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남한으로 입국하여 하나원 및 남한의 교육기관에서 적응 교육을 받는 동안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해보는 남·북한의 실상을 비교 체험하면서 인식의 변화를 크게 가져오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북한 사회 지도층의 부정과 부패,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보며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VI. 결 론

새터민 초등학생의 역사 인물에 대한 인식의 양상은 북한의 역사 교과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도구적 교과로써 그들의 체제와 이념을 반영하는 인물들을 선정하고 세뇌교육을 시킨 결과물이다. 북한 내의 정규 소학교 교육과정의 역사 교과 시간은 김일성 가계에 대한 정치 사상교육에 할애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새터민 초등학생들이 정치사상 교육 시간이 타 교과에 비해 수업의 강도와 이를 제대로 암기하고 이수하지 못해 처벌 받는 데에 대한 중압감이 상당했다고 하였다. 즉, 북한 체제의 특수성과 김일성 가계의 이상화 교육, 그리고 북한 지도층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전제로 한 체제 유지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상화 인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입국 후, 하나원 내에서의 교육과 TV,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다양한 매체, 그리고 정착 지원 학교의 적응 교육을 통해 일부 새터민 초등학생들에게서 김일성 가계의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변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 체제의 역사 교과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역사적 사실은 새터민 초등학생의 긴 탈북기간과 사회주의 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왜곡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인식되는 오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새터민 초등학생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입국하기 전까지 제3국에 체류한 기간이 상당히 길며,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사정으로 인해 북한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고 탈북하거나 정규 교과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집단 농장에 식량 생산을 위해 동원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역사 수업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수하지 못하거나 긴 시간동안 단절되는 상황으로 인해 역사 인물에 대한 오개념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의 서술 체계가 인물이나 사건 위주의 주제 중심의 서술방식으로 전개 되어 짧은 시간 동안 중학교에서 역사 수업을 받은 새터민 초등학생에게 우리 역사의 연대기적인 전체 흐름의 기억보다는 단편적인 인물과 시대만을 기억하게 되어 이로 인한 시대와 인물

혼동하게 되는 오개념이 형성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탈북한 대부분의 새터민 초등학생의 출신 지역이 북한 체제의 지도층과 당 간부의 자제가 상당수인 수도 평양의 학생들과 달리 북한의 북쪽 국경 지역인 함경도·양강도 지방의 낙후된 특수성으로 인해 역사 인물에 대한 인식 경로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정규 수업 시간에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 속의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책방의 텍스트로 된 서적이거나 그림책, 부모나 형제 그리고 친척들의 구전으로 전해지는 제한적 경로를 통해 알게 되는 역사 인물의 수는 극히 적었다. 따라서,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는 역사 인물들을 제외하고 함경도·양강도 출신의 새터민 초등학생들이 교과 이외에 인식하고 있는 한국사 인물의 다양성 역시 그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정착지원 학교의 새터민 초등학생의 한국사 인물 인식의 실태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터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남한사회 적응의 매개로써 초등 사회과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새터민 초등학생의 남한사회의 자아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을 위한 정착지원 학교에서 초등 사회과의 역사교육 강화와 별도의 교재를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터민 초등학생들이 배웠던 역사교과서가 체제 유지를 위한 인물 선정과 내용 조직으로 인해 새터민 초등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역사 인물의 수와 인물의 유형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새터민용 교재를 다루는 수업 이외에 원격학급의 교과교육 보충 시간에도 새터민 초등학생의 개인별 수준을 고려한 별도의 수준별 학습이 필요하다. 탈북하기 전, 새터민 초등학생의 북한 정규 역사 수업의 이수 정도를 파악해 각 개인에 알맞은 수준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역사 인물에 대한 이해와 보충 지도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새터민용 교재와는 달리 초등 사회과의 역사영역만을 다루는 별도의 교재를 개발하여 남북한 역사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을 연대기적으로 시대를 구분하여 각 시대별로 대표하는 인물을 주제 중심으로 제시함으로써 시대와 인물을 혼동하여 생기는 오개념을 줄이고, 역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재나 읽기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북한에서 제한적 경로를 통해서 인식한 역사 인물의 인식의 경로를 남한의 정착지원 학교에서 확대해 주어야 한다. 특별학급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시간의 일부를 재구성해 역사인물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위한 열린 통로로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탈북하기 전, 북한 내에서 교과서, 그림책, 구전을 통한 극히 제한적 경로를 통한 역사 인물 인식에서 벗어나 정보화 기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매체에서 역사 인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인식하는 열린 경로의 통로를 제공해 역사 인물에 대한 새터민 초등학생들의 개방적이고 확산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러한 새터민 초등학생들의 한국사 인물 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로의 이질화 된 체제 내에서 상이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새터민 초등학생들에게 초등 사회과 교육의 역사 인물학습은 단편적인 사건과 인물 위주의 제시보다는 남북한의 한민족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인물을 소재로 새터민 초등학생들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 내용 선정과 교육과정 재구성 및 별도의 교재 개발을 통해 남한 사회의 적응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강선주, 최상훈, 이영효, 김한중(2007).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서울: 책과함께.
- 김미영(2004). 탈북청소년의 교육실태와 역사인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김선규(2000). 남북한 중등학교 국사교과서 등장인물의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경남.
- 김영하(2010). 다문화 사회와 새터민 청소년의 교육문제. 윤리교육연구 제21집. 한국윤리교육학회, pp. 223-248.
- 김한중(2006).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서울: 선인.
- 김한중 외(2006).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서울: 책과함께.
- 김홍수(1996).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등장한 인물에 관한 연구. 초등사회과 교육 제8집, 한국초등사회과 교육학회. pp. 125-167.
- 삼죽초등학교(2007). 새터민 초등학생용 교과서-우리는 하나 5-. 안성: 삼죽초등학교.
- 삼죽초등학교(2007). 새터민 초등학생용 교과서-우리는 하나 6-. 안성: 삼죽초등학교.
- 삼죽초등학교(2007). 새터민 초등학생용 지도서-우리는 하나 5-. 안성: 삼죽초등학교.
- 삼죽초등학교(2007). 새터민 초등학생용 지도서-우리는 하나 6-. 안성: 삼죽초등학교.
- 송상헌(2005). 역사교육의 내용을 둘러싼 역사 교육 담론의 검토. 역사교육연구 제1호. 한국역사교육학회. pp. 79-111.
- 이찬희(2004). 북한 중학교 『조선력사』 교과서 내용분석. 북한연구학회보 2004년. 북한연구학회. pp. 195-218.
- 정병호(2007). 새터민 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방안 마련 연구. 경기도교육청.
- 조정아 외(2006). 새터민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통일교육원.
- 통일부 통일교육원(2011). 2011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통일교육원